

누군가 그랬다.

소수의 지도자와 소수실무 경험없는 관리의 기획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. 다만 몇 사람의 기획과 다수 민중이 참여할 때 위기극복은 물론이요 미래의 평화와 영속성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고.

역사는 특권 계층이 끌여가는 것이 아니라 말없는 다수 민중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.

우리나라 환경의 역사도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한다.

정부대표와 환경전문가로 자처하는 소수 집단에게만 우리의 환경을 맡겨 놓는다면 환경의 질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. 아마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.

구태여 계층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을 논할 생각은 없다.

우리 환경관리인들의 기본적인 사고체계에도 서로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.

가장 큰 차이가 현장관리인과 사무직관리인의 환경관이다.

펜과 머리로만 계획하는 관리직환경인과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험연구로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환경관리인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. 알팍한 사고로 그 차이를 따진다면 과거 조선시대나 존재할 수 있었던 사농공상의 계층적 구분 정도로나 생각할까 무엇이든지 사무직관리인이 현장관리인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정화되지 않은 선입견이 더욱 두터운 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벽을 허물고 서로가 대등하다는 인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. 그래서 나는 환경기능사 제도가 도입되고 이것이 실용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제도란 단순한 허상과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도의 틀속에 살고 있기에 이 법적 테두리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환경의 질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우리들 끼리 상호불협화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?

우리가 모여 한목소리를 내면 일단의 집단이 형성될 것이고, 그 집단을 보다 강한 압력단체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.

환경관리인연합회가 그렇게 태동되었다. 우리는 그속에서 단순한 권익옹호만 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큰 환경의 줄기를 타고 흘러 오염되어 가는 곳곳을 정화해 낼 것이다.

환경의 역사는 그렇게 창조된다.

말없는 다수 실무진이 전문가 집단과 손잡고 그 힘이 행정관청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.

총체적 환경관이 그래서 필요하다.

실무와 연구가, 이론과 실천이 합치될 수 있는 상호보완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때 서로에 대한 경외심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다.

옆에서 일하는 동료환경인만 보아도 힘이 생기고 의욕이 넘치는, 그로 인해 우리의 연구가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역사.

우리가 나서서 만들어야만 한다. ◀

서로 존중하는 환경인이 되자



설동화 <광주·전남협의회 총무>